

OECD 회원국의 장애인복지지표 현황 및 시사점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 영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신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도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정책에 대한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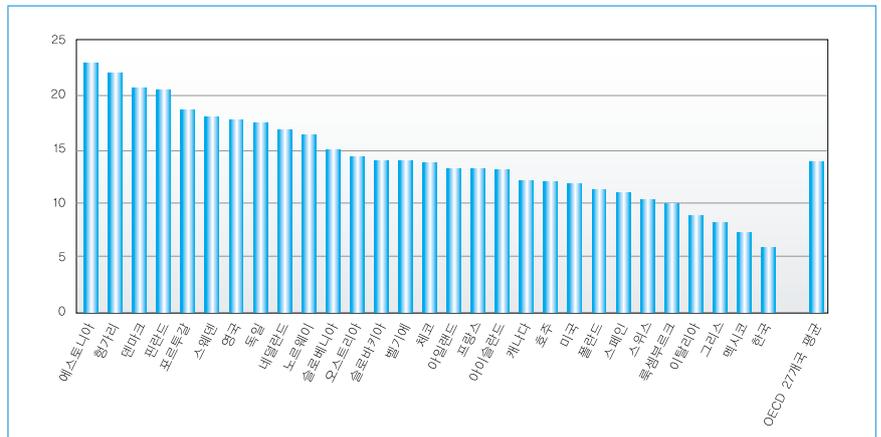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1. 장애 출현율

□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7명 중 1명(14.3%)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성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2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6% 수준의 장애출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다른 국가가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서베이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측정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장애인구를 통해 장애출현율을 파악하였기 때문임

[그림 1]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근로연령대 인구(20~64세) 장애출현율



주: 자기 평가에 의한 장애출현율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2. 장애인복지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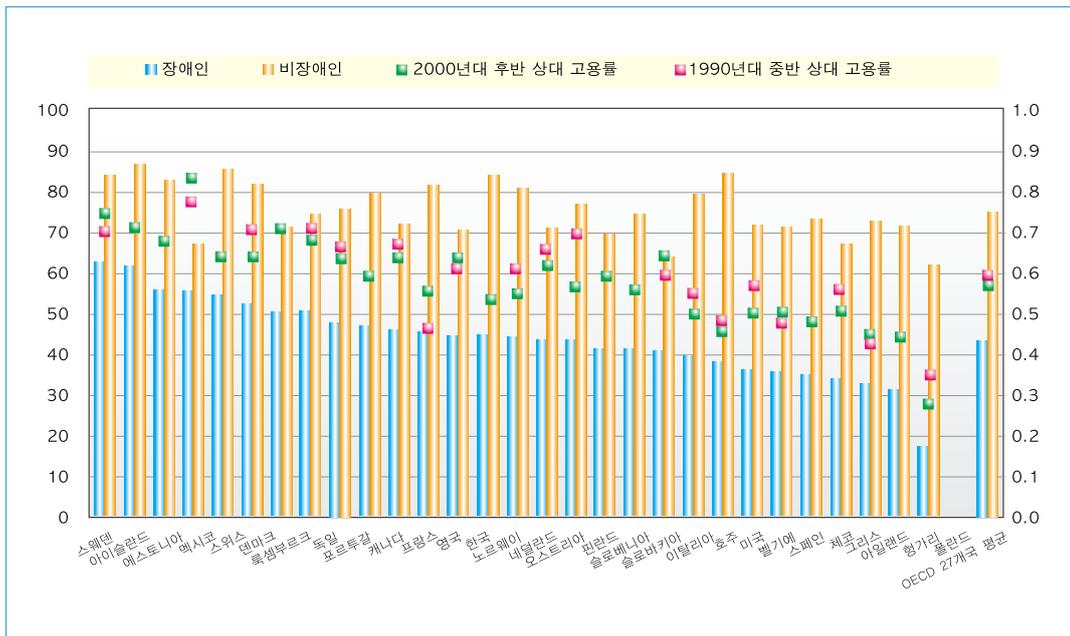
가. 장애인 고용률

□ 2000년대 후반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서 이는 같은 기간 비장애인 고용률 7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비장애인 고용률 대비 장애인 고용률을 의미하는 상대 고용률은 1990년대 중반보다 오히려 낮아졌는데, 지난 10년이 비교적 경제호황기였던 시기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가 장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며, 상대 고용률의 경우 1990년대 중반보다 약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OECD 회원국의 2000년대 후반 장애인 고용률 및 1990년대 중반 이후 상대 고용률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나. 장애인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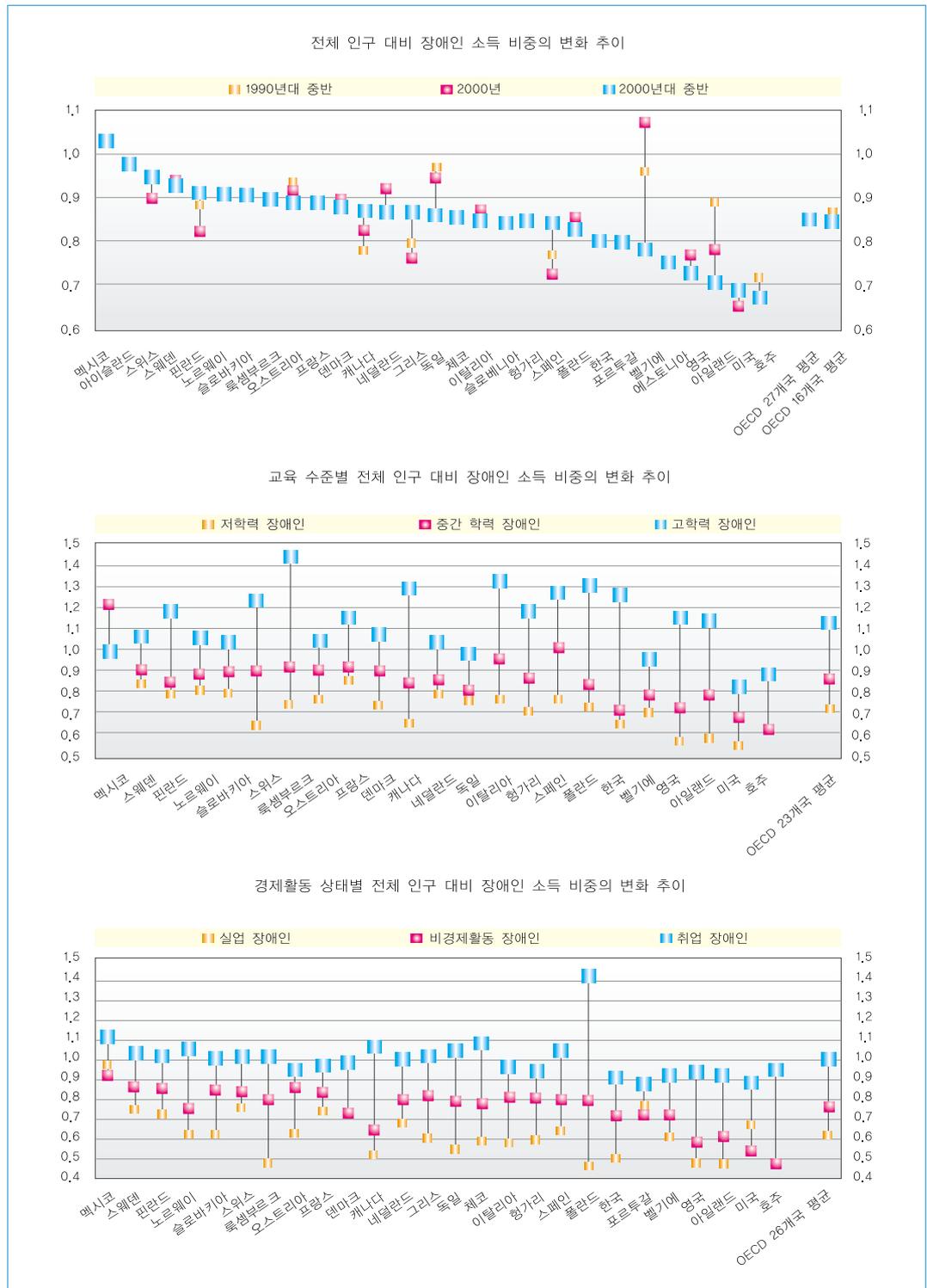
□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 보다 15% 낮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20~30% 이상 낮았음**

○ 교육수준별로 장애인 소득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을 가진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인구 평균 소득보다 10~20% 이상 높았음

○ 경제활동상태별로 장애인 소득을 살펴보면, 취업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인구 평균소득 보다 훨씬 높은 반면, 비경제활동상태 혹은 실업 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전체 인구 평균소득보다 낮았는데, 특히 비취업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소득의 50% 수준에 불과하였음

·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은 전체 인구 평균 소득보다 20% 정도 낮았으며, 이는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준임

[그림 3] OECD 회원국의 1990년대 중반, 2000년, 2000년대 중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월평균 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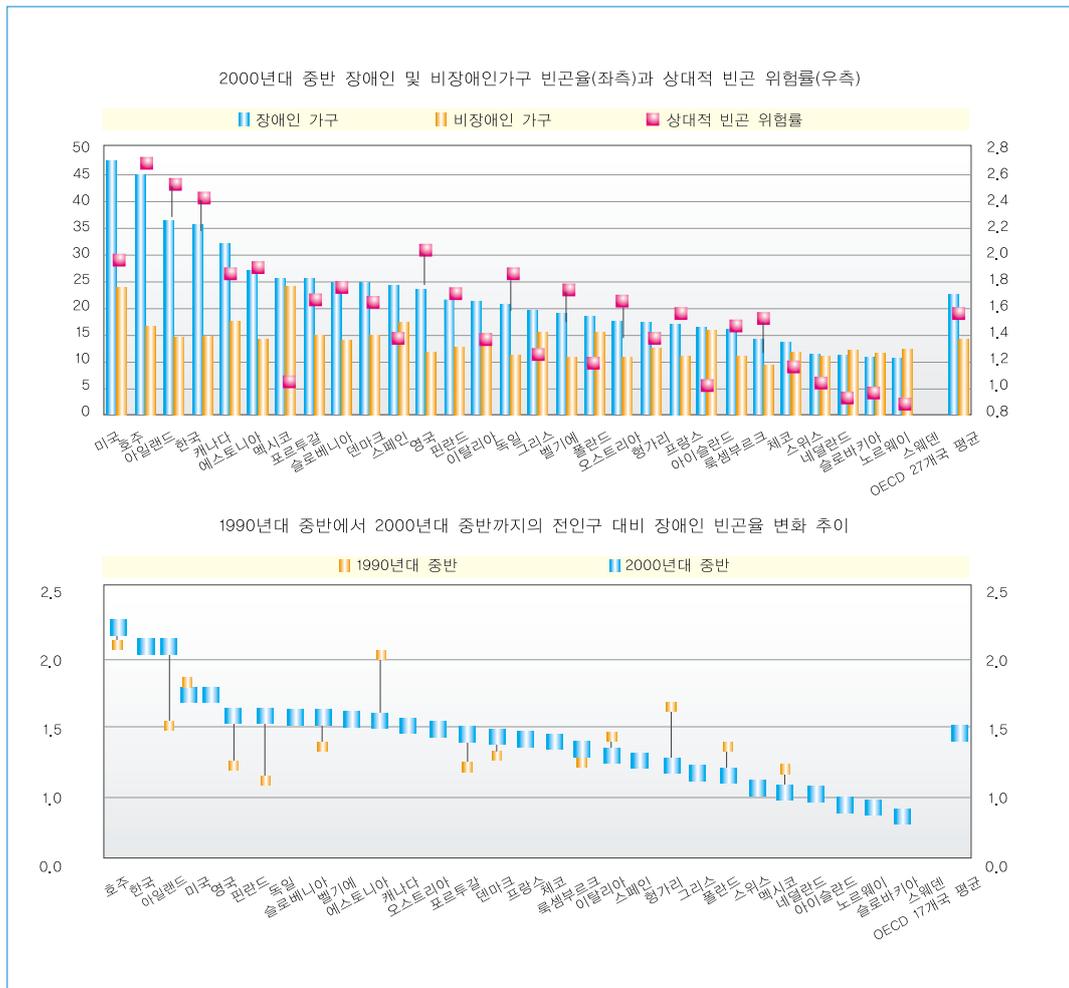
다. 장애인가구 빈곤율

□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22%로서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14%보다 8% 포인트 높았음

○ 비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 대비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을 의미하는 상대적 빈곤위험율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 평균 1.6으로서 이는 장애인가구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비장애인가구보다 1.6배 높다는 의미임

·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장애인가구 상대빈곤율은 35%로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으며, 상대적 빈곤위험율에 있어서도 2.4로서 미국, 호주,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았음

[그림 4] OECD 회원국의 2000년대 장애인가구 빈곤율 및 상대적 빈곤위험률



주: 상대빈곤율의 경우 중위소득 하위 60% 미만을 기준으로 한 것임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라.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

□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1.3%이며, 여기에 상병 급여(sickness benefit) 지출까지 포함하면 2%에 달함.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상병 급여 지출을 포함한 장애 관련 급여 지출이 전체 공적 사회 지출(public social spending)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로서 실업 급여와 함께 사회 지출의 증가를 유발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로서 이는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인 1.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 OECD 국가의 GDP 대비 공적·사적 장애급여 및 질병급여 지출

구분	장애급여			상병급여			장애급여+상병급여				
	GDP 대비 %			GDP 대비 %			GDP 대비 %			실업급여 대비 %	총 공적 사회지출 대비 %
	1990년	2000년	2005년	1990년	2000년	2005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5년	2005년
호주	1.1	1.2	1.3	0.5	1.8	1.3	1.6	3.0	2.5	463	15
오스트리아	1.8	1.1	1.3	1.3	1.1	1.0	3.1	2.3	2.4	221	9
벨기에	1.4	1.2	1.4	1.4	0.7	0.7	2.8	1.9	2.1	72	8
캐나다	0.4	0.4	0.4	0.0	0.0	0.0	0.4	0.4	0.4	65	2
덴마크	1.6	1.5	1.8	1.4	1.1	1.3	2.9	2.6	3.1	231	11
핀란드	2.1	1.8	1.9	1.5	1.2	1.2	3.6	3.0	3.1	194	12
프랑스	0.9	0.8	0.9	0.6	0.7	0.8	1.6	1.5	1.6	99	6
독일	0.8	1.0	0.9	1.9	1.6	1.3	2.7	2.5	2.2	148	8
아일랜드	0.5	0.6	0.7	0.8	0.6	0.7	1.3	1.1	1.5	163	9
이탈리아	1.2	1.9	0.8	0.9	0.7	0.5	2.1	1.6	1.3	324	5
일본	0.3	0.3	0.3	0.1	0.1	0.1	0.4	0.4	0.4	125	2
한국	0.1	0.1	0.1	0.1	0.1	0.1	0.2	0.2	0.2	104	3
룩셈부르크	2.0	1.7	1.6	0.6	0.6	0.9	2.6	2.3	2.5	324	11
멕시코	0.0	0.0	0.1	0.0	0.0	0.0	0.0	0.0	0.0	-	-
네덜란드	4.7	2.7	2.4	2.9	2.2	2.3	7.6	4.9	4.6	303	22
뉴질랜드	0.6	0.9	1.0	0.3	0.3	0.3	0.9	1.2	1.3	302	7
노르웨이	2.5	2.3	2.6	2.6	2.7	2.4	5.1	5.1	4.9	960	23
포르투갈	1.7	1.8	1.8	0.0	0.0	0.0	1.7	1.8	1.8	157	8
스페인	1.2	1.2	1.1	1.0	1.0	1.1	2.2	2.2	2.2	103	11
스웨덴	1.9	2.1	2.5	3.1	2.0	1.7	5.0	4.1	4.2	353	14
스위스	1.0	1.8	2.1	1.2	1.1	1.0	2.2	2.8	3.2	339	16
영국	1.6	2.1	1.8	0.6	0.7	0.5	2.2	2.8	2.3	904	11
미국	1.5	0.6	0.7	0.8	0.6	0.7	1.3	1.2	1.4	483	9
OECD평균	1.3	1.2	1.2	1.0	0.9	0.8	2.3	2.1	2.0	248	10

주: 장애급여는 공공 및 민간 장애 급여를 모두 포함함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3.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및 고용서비스 수준 비교

□ OECD(2010)는 OECD 회원국의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각각 10개씩 설정하여 개별 회원국의 점수를 산출하였음

○ 장애급여 세부 지표는 1)지급 범위 2)최저 장애(근로무능력) 기준 3)최고 급여 장애(근로무능력) 기준 4)최고 급여 수준 5)급여 지급의 영속성 6)의학적 진단 기준 7)근로능력 사정 기준 8)상병급여 수준 9)상병급여 지급 기간 10)상병급여 모니터링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지표마다 최고 5점에서 최저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지표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5.9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15점으로 나타났음

[표 2] OECD 회원국의 장애급여 지표 점수

구분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지표 5	지표 6	지표 7	지표 8	지표 9	지표 10	계
호주	4	1	2	1	2	3	1	1	1	5	21
오스트리아	2	3	4	2	1	1	4	3	2	2	24
벨기에	3	2	3	1	4	2	4	2	2	2	25
캐나다	1	1	1	1	4	1	0	1	1	5	16
체코	1	4	3	3	0	2	1	0	5	5	24
덴마크	5	2	1	3	4	4	2	4	3	0	28
핀란드	5	4	4	3	2	3	2	3	3	3	32
프랑스	3	2	1	3	1	2	4	2	5	2	25
독일	3	5	3	2	1	3	2	4	4	5	32
그리스	3	3	2	5	2	1	3	2	2	2	25
헝가리	1	3	2	3	2	1	4	3	5	4	28
아일랜드	3	1	2	1	4	3	2	1	5	4	26
이탈리아	3	2	0	3	1	1	3	3	5	5	26
일본	4	1	0	1	2	2	0	2	5	4	21
한국	3	3	0	1	2	1	0	0	1	4	15
룩셈부르크	2	1	2	5	3	2	2	5	4	2	28
멕시코	0	3	4	0	3	2	5	2	3	5	27
네덜란드	4	4	2	3	2	1	0	4	4	0	24
뉴질랜드	5	1	2	1	2	3	1	1	5	2	23
노르웨이	5	3	2	4	2	4	2	5	4	2	33
폴란드	3	3	4	4	0	1	3	3	2	2	25
포르투갈	3	2	3	5	4	1	4	1	5	5	33
슬로바키아	1	4	3	2	4	2	1	2	5	2	26
스페인	3	4	1	4	5	0	3	2	4	1	27
스웨덴	5	5	1	5	4	3	1	4	4	5	37
스위스	5	4	3	3	4	3	2	3	4	1	32
영국	3	1	2	1	2	3	1	1	2	5	21
미국	3	0	1	3	4	4	0	3	0	2	20
OECD평균	3.1	2.6	2.1	2.6	2.5	2.1	2.0	2.4	3.4	3.1	25.9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고용서비스 세부 지표는 1)지원대상의 일관성 2)급여와 지원체계의 연계 3)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4)지원 고용 프로그램 5)임금보조고용 프로그램 6)보호 고용 프로그램 7)직업재활서비스의 포괄성 8)재활서비스 제공 시기 9)장애급여 지급 유예 조치 10)수급자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지표마다 최고 5점에서 최저 0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표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4.9점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그리스와 더불어 멕시코(8점) 다음으로 가장 낮은 16점으로 나타났음

[표 3] OECD 회원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지표 점수

구분	지표 1	지표 2	지표 3	지표 4	지표 5	지표 6	지표 7	지표 8	지표 9	지표 10	계
호주	4	5	3	1	2	3	1	3	5	1	28
오스트리아	2	3	3	4	4	2	5	4	0	3	30
벨기에	3	3	3	1	5	2	2	3	2	0	24
캐나다	1	1	3	3	2	2	1	2	5	4	24
체코	3	1	4	1	1	3	1	4	0	3	21
덴마크	4	4	2	3	5	2	5	4	5	3	37
핀란드	2	2	4	3	3	3	4	4	5	2	32
프랑스	3	2	3	3	5	4	1	2	0	3	26
독일	4	0	4	5	4	3	5	5	3	2	35
그리스	3	2	3	0	2	3	0	1	0	2	16
헝가리	2	3	4	3	3	2	3	2	4	2	28
아일랜드	3	2	2	1	3	2	0	1	1	2	17
이탈리아	4	2	4	1	1	2	0	2	0	2	18
일본	3	1	1	3	3	2	2	4	5	3	27
한국	0	1	1	2	3	2	1	2	1	3	16
룩셈부르크	2	4	3	2	4	3	2	3	0	1	24
멕시코	2	2	0	0	0	0	0	1	0	3	8
네덜란드	4	4	4	2	2	4	4	4	2	5	35
뉴질랜드	3	5	2	2	2	0.5	0	0	3	3	21
노르웨이	4	5	4	2	4	4	5	4	5	0	37
폴란드	4	2	2	0	3	4	2	2	0	3	22
포르투갈	3	2	2	1	2	2	1	1	1	1	16
슬로바키아	3	2	4	2	2	3	0	2	0	3	21
스페인	4	3	3	1	2	3	2	2	0	2	22
스웨덴	3	4	5	2	4	3	3	3	5	0	32
스위스	4	4	2	1	1	3	5	4	0	3	27
영국	4	4	4	3	1	2	1	3	5	5	32
미국	0	0	3	4	1	2	1	1	5	4	21
OECD평균	2.9	2.6	2.9	2.0	2.6	2.5	2.0	2.6	2.2	2.4	24.9

자료: OECD, Sickness and Disability Policies Synthesis Report, 2010

4. 시사점 및 정책 과제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어느 국가보다도 지난 10년간 장애인정책 영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보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장애범주의 확대,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법률의 제정, 장애수당의 확대 및 장애인연금 도입,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등 신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도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애인정책에 대한 예산도 급격히 증가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의 장애인복지예산(장애급여 지출) 규모는 주요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장애인이 여전히 높은 빈곤 위협에 직면해 있고, 낮은 취업률과 자립생활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 충족과 장애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복지예산을 증가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즉, 기존 제도의 확대는 물론,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과 더불어 각각의 제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윤상용 (복지서비스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사항(02-380-8335)